

# 전남도, 여수·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과 소통

## 공청회에서 여수·광양 지역 도민 대상 산업·일자리·균형발전 등 동부권 현안 수렴

전남도는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부권 지역인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공청회에선 여수·광양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일자리·균형발전 등 동부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면 동부권·서남권·광주권을 3핵 3축으로 가야 하며, 행정은 3핵, 경제는 3축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수·광양은 석유화학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전남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며,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구부산 관광단지 등 해안·레저·휴양 관광도시로서 위상도 확고하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등 여수·광양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동부권 도민의 현실적 요구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통합이 경제다, 일자리다, 균형발전이 행정·교육통합 여수

히 반영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는 ▲28일 담양군·보성군 ▲29일 완도군·해남

군·진도군 ▲30일 곡성군·구례군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도민공청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도 참여하도록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시군별 세부 일

정과 참여 방법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청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 광주전남 통합 북구권역 시민공청회

“AX·자율차·쇼핑 품은 성장 축… 강점 더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북구, 북구의회와 함께 27일 오후 북구문화센터에서 북구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북구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네 번째 일정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시장, 최무송 북구의장을 비롯해 안전·교통·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완 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경제·생활서비스 분야 변화 전망 ▲주민 자치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인 북구청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시민과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제, 행·재정, 교통, 복지, 교육 등 통합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광주시 관계 실·국장들이 직접 답변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참석 시민들은 통합을 통한 광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는 한편 광주지역 정체성 유지, 기존 자치구 권한 축소 우려, 행정 서비스 접근성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들은 특히 행정통합으로 인한 교육·보육정책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청년기 머물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 마련 ▲농촌학교 소멸 대책 ▲기초자치단체 단위 교육자치 보장대책 ▲출생축하금 등 지역 간 보육정책 격차 완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행정 통합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과 돌봄, 인재 양성 체계가 광역단위로 촘촘하게 연결돼 아이들이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북구는 NPU컴퓨팅센터, 복합쇼핑몰, 자율주행차 실증 등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통합으로 광주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어떤 시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우리가 30년 동안 염원한 것이다. 우리의 염원이 빨리 이뤄지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시민공청회는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남구권역 시민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직능별 공청회는 2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 북구,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광주 유일

#### 선제적 지원으로 아동학대 대응 공백 해소 목적

다. '신속 지원 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학대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의심 아동에게 의료비, 응급 보호 물품 등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부모와 사춘기 자녀 간 발생한 갈등이 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가정에는 '양

육 코칭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 부모 자녀 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방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위기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양육 상황 점검' 서비스도 병행

된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작년도 사업을 통해 총 44가구 105명의 피해 의심 아동과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 및 지원한 바 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7일 북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행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신속 지원 ▲양육 코칭 ▲양육 상황 점검 등 3가지 서비스를 추진한

###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4년 연속 문체부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

#### K-컬처 대표 글로벌 축제 도약 발판 마련

번 입증했다.

이번 재선정으로 동구는 ▲축제 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 ▲축제 아카데미 및 컨퍼런스 ▲국내외 홍보·마케팅 ▲축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열린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총장 퍼레이드'를 2일간 집중 편성해 관람 몰입도를 높였으며, 야간 도심의 역동성을 부각한

'총장 로드 나이트'를 신규 도입해 젊은 층과 관광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아시아 문화의 날'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전통 놀이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동남아 아시아 분위기를 재현한 '아시아 컬처 스트리트'와 전통 공연이 펼쳐지는 '아시아 컬처 쇼'를 운영해 금남로 일대를 아시아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대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민과 관광객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한 '광주 주먹밥 콘테스트'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광주가 지닌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축제 콘텐츠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호응을 얻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재선정은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운영 전반을 한층 고도화해 K-컬처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금남로, 총장로,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오철수 기자

### 남구, 구립도서관 상반기 프로그램 강사 모집

2월 1일까지 신청서 접수... 3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배)는 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구립 문화정보도서관과 푸른길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 4곳에서 모집하는 독서문화 및 북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는 총 27명이다.

문화정보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각각 6명을 선발하며, 효천어울림 도서관 및 푸른길 도서관에서는 7명과 8명을 뽑는다.

구립도서관별 프로그램 강사 선발 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남구통합도서관(lib.namgu.gwangju.kr)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자격증 및 학위를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출중한 경력에 있는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강사는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접수 기간 내에 담당자 이메일(liblee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서류 접수 뒤 강의 계획서와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13일에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구립도서관별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